

박인환의 시와 W.H. 오든의 『불안의 연대 The Age of Anxiety』의 비교문학적 연구*

- ‘로제타’의 변용과 ‘불행한 신’의 의미를 중심으로 -

최 라 영**

차 례

- | | |
|---------------------------|-------------------------|
| 1. 서론 | 3. ‘일곱 層階’와 ‘不幸한 神’의 의미 |
| 2. ‘로제타’의 변용과 ‘호흡이 끊긴 天使’ | 4.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불안의 연대』의 ‘로제타’의 발화와 관련하여 박인환의 시에서 초점화되는 ‘인간적 가치’를 조명하고 ‘일곱단계’의 의미와 관련하여 오든이 형상화한 ‘신’과 대비하여 박인환의 ‘불행한 신’의 의미를 살펴본다. 오든은 ‘로제타’의 사랑을 초점에 두기보다는, 파멸되어가는 인간 세계들을 확인하고 신의 에덴을 향하지만 끝내 절망하는 모습을 초점화하고 있다. 그런데 박인환은 오든의 인물들 중에서 ‘인간에’를 충만하게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60924).

** 한국외국어대 외래교수

보여주는 ‘로제타’라는 여성의 인간적인 사랑과 애도를 부각시켰다. ‘로제타’의 변용과 대비되는 박인환의 ‘호흡이 끊긴 천사’는 시인이 지켜주어야 하는 대상이었으나 그렇지 못하고 죽어버린 여성이다. 그는 사랑하는 이를 향한 애도를 초점화되며 애도하는 이의 ‘불행한’마음 속에 있는 ‘호흡이 끊긴’ 사랑하는 이에게서 ‘천사’ 곧 ‘신의 속성’을 발견한다. 즉 그는 여인과의 사랑과 애도와 같은 ‘인간적인 가치들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들 속에서 ‘신적인 것’을 찾고 있다.

‘로제타’의 변용과 함께 유의성을 지닌 재제는 ‘일곱단계’를 들 수 있다. ‘일곱단계’는 “불안의 연대”의 2장과 3장의 제목이자 각 장의 구성원리이다. ‘일곱 단계’의 의미는 1,2차 세계대전 및 6.25전쟁이라는 역사의 비극적 단계를 나타내면서 성경에서의 ‘일곱’, 즉 인간세계의 환난의 극단 혹은 신의 재림에의 희망이라는 상반되면서 양립적인 뜻을 나타낸다. 오든은 ‘일곱단계’의 구성을 경유하여 인간세계에는 어떠한 희망도 부재하며 강력한 ‘신’의 처벌만이 있을 뿐이라는 철저한 절망을 형상화한다. 그 절망의 여정에는 유년기의 ‘엄격한 부모’의 형상이 자리잡고 있다. 유년기의 불행이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오든과 박인환은 유사성을 지니지만, 오든의 ‘엄격한 부모의 상’과 대비적으로 박인환은 ‘연민의 대상이자 분신으로서의 부모의 상’을 보여준다.

두 시인에게서 ‘신의 온정’의 세계를 향하는 길은 결핍 혹은 상처를 입은 인물들의 유년기 자아의 문제 즉 ‘일곱단계’의 여정 속에서 의식, 무의식적으로 떠올랐던 ‘부모의 형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즉 오든의 인물들은 시공간적 여행 속에서 심층적 이해가 결핍된 유년기 자아의 관점에서 과거의 상처만을 기억해내는 일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들의 결점과 죄, 폭력과 전쟁의 사태를 일일이 들추어내면서 ‘엄격한 훈육’과 환치되는 인류를 처벌하는 신의 자취들을 발견하면서 다만 두려움 속에 허우적거리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박인환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함께한다고 의식하는 신의 형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친우’와 ‘가족’을 염려하는 자리에서 자아의 내면을 응시하고 ‘신’을 부르며 ‘불안’으로부터 안정감을 찾는다. 즉 그의 ‘신’은 ‘불안한 신’이자 ‘불행한 신’이다(그의 작품들에서 ‘불안’과 ‘불행’이라는 말은 혼용되며 그 둘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것은 ‘절름발이 내 어머니’와 유사하게 그 자신의 내면에 자리잡은 분신으로서 나타난다. 그의 ‘신’은 고통스런 현실에 처함에도 자아에 내재된 ‘인간적인 가치들’을 인식하고자 하는 절박함 속에서 부상한다.

오든의 ‘로제타’의 ‘신’은 ‘나’와 ‘인간들’의 마음 속에 있다기보다는, 인간들 세계의 외부에 있는 ‘강력한’ 존재로서 구체화된다. 그는 전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인간들을 처벌하는 신의 흔적들을 발견하며 낙원으로부터 쫓겨나 막막한 인류의 상황을 확인한다. 한편, 박인환은 사랑과 애도와 같은 ‘인간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에서 ‘신성한’ 의미를 찾는 ‘현세주의적 경향’을 보여준다. 이것은 인간세계의 추악한 면과 신의 처벌상을 확인하고서 자신들을 구제할 신을 부르는 오든의 ‘관념주의적 경향’과 대비된다. 박인환에게 ‘불행한’(혹은 ‘불안한’)과 ‘신’이 결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행한 나’의 ‘신’ 즉 ‘불행한 인간들의 마음에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그의 ‘불행한 신’은 ‘1950년대 사절단’으로서 전쟁현실을 보고하고 친우들의 비참한 주검들을 목도하면서 불렀던 절박한 토로처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현대시의 의의’를 “전후적인 황무지 현상과 광신”에서 “더욱 인간의 영속적 가치를 발견하는”것 즉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그의 신념과 관련된다.

주제어 : 박인환, W. H. 오든, 불안의 연대, 로제타, 일곱단계, 불안, 강력한 신, 불행한 신, 내적 세계, 인간적 가치.

1. 서론

박인환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최근에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연구 초반기에는, 후기시에서의 폐시미즘 혹은 감상주의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의 문학 및 시정신에 관한 부정적 평가로 기울어지기도 하였다. 그 근거가 된 것은 박인환 시세계의 다양한 스펙트럼 가운데 일부가 지나치게 부각된 때문이다. 연구사에서, 박인환의 초기시에 관해서는, ‘후반기’ 동인활동을 중심으로 한 ‘모더니즘적 관점’연구가 있으며¹⁾ 민족 문학과 전쟁체험과 관련한 ‘현실주의적 관점’의 연구²⁾가 있다. 그리고 ‘미국여행’이후, 후기시에 관해서는, 아메리카니즘의 관점과 문명비판적 관점을 조명한 연구³⁾가 있다. 박인환에 관한 각각의 연구들은 초점이

- 1) 오세영, 「후반기 동인의 시사적 위치」, 『박인환』, 이동하 편, 『한국현대시인연구 12』, 문학세계사, 1993; 김재홍, 「모더니즘의 공과」, 이동하 편, 앞의 책, 이승훈,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의 전개」, 『한국모더니즘 시사』, 문예출판, 2000; 박몽구, 「박인환의 도시시와 1950년대 모더니즘」, 『한중인문학연구』 22, 한중인문학연구, 2007.
- 2) 박현수, 「전후 비극적 전망의 시적 성취-박인환론」, 『국제어문』 37, 국제어문학회, 2006; 맹문재, 「폐허의 시대를 품은 지식인 시인」, 『박인환 깊이 읽기』, 서정시학, 2006; 정영진, 「박인환 상의 탈식민주의 연구」,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조영복, 「근대문학의 ‘도서관 환상’과 ‘책’의 숭배 -박인환의 「서적과 풍경」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23, 한국시학회, 200; 광명숙, 「1950년대 모더니즘의 목시록적 우울-박인환의 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김은영, 「박인환 시와 현실인식」, 글벗, 2010; 김종운, 「전쟁체험과 실존적 불안의식-박인환론」, 『현대문학의 연구』 7, 현대문학연구학회, 1996.
- 3) 한명희, 「박인환 시 『아메리카 시초』에 대하여」, 『어문학』 85, 한국어문학회, 2004; 방민호, 「박인환 산문에 나타난 미국」, 『한국현대문학연구』 19, 한국현대문학회, 2006; 박연희, 「박인환의 미국 서부 기행과 아메리카니즘」, 『한국어문학연구』 59, 한국현대문학회, 2012; 정영진, 「박인환 시의 탈식민주의 연구」,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이기성, 「제국의 시선을 횡단하는 시 쓰기: 박인환 시의 탈식민주의」, 『현대문학의 연구』 34, 현대문학연구학회, 2008; 이은주, 「1950년대 문학비평의 세계주의와 미국적 가치지향의 상관성」, 『상허학보』 18, 상허학회, 2006; 장석원, 「아메리카 여행 후의 회념」, 『박인환 깊이 읽기』, 서정시학, 2006; 오문석, 「박인환의 산문정신」, 『박인환 깊이 읽기』, 서정시학, 2006; 강계숙, 「불

맞추어진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시기일지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반된 가치평가가 공존하는 특수성을 보여준다.

박인환 연구사에서 보충논의가 요청되는 부분으로 전후(戰後) ‘불안의식’⁴⁾과 ‘시론적 지향’과 관련한 비교문학적 관점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박인환은 광범위하며 상충적이기까지 한 시의 스펙트럼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그의 시세계를 관류하는 것은 ‘시론적 지향’과 결합된 그의 독특한 ‘불안의식’이다.⁵⁾ 그의 ‘불안의식’은 세계대전 무렵의 세기말 의식, 전위모더니즘적 지향 그리고 실존주의적 의식 등을 복합적으로 관류하고 있다. 필자는 박인환 시의 ‘불안의식’을 구명하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즉 그의 시에 관하여 ‘민족적 자의식’, 라캉의 정신분석적 관점, 실존주의적 관점 등의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 글은 ‘불안의식’과 관련하여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박인환 시론의 고유성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박인환의 시세계는 전쟁기의 불안의식을 주조로 하여 자본주의, 문명 비판, 탈식민주의 의식 등을 특징적

인’의 정동, 진리, 시대성: 박인환 시의 새로운 이해』, 『현대문학의 연구』 51, 현대문학연구학회, 2013; 라기주, 『박인환 시에 나타난 불안의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최라영, 『박인환 시에서 ‘미국여행’과 ‘기묘한 의식’ 연구-‘자의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연구』 45, 현대문학연구학회, 2015.

4) 박인환의 ‘불안의식’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로는, 김승희, 『전후 시의 언술 특성: 애도의 언어와 우울증의 언어-박인환·고은의 초기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23, 한국시학회, 2012. 125-149쪽; 강계숙, 『‘불안’의 정동, 진리, 시대성: 박인환 시의 새로운 이해』, 『현대문학의 연구』 51, 현대문학연구학회, 2013; 라기주, 『박인환 시에 나타난 불안의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최라영, 『박인환 시에서 ‘십자로의 거울’과 ‘새로운 불안’의 관련성 연구-라캉의 ‘정동affect’이론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연구』 51집, 현대문학연구학회, 2017.

5) 박인환의 시세계 전반에서 ‘불안의식’이 형상화되고 있는데 특히 시적 유의성을 지니고 ‘불안’이 표면적으로 언급되는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奇蹟인 現代』, 『西部戰線에서』, 『다리 위의 사람』,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 『舞蹈會』, 『太平洋에서』, 『最後의 會話』, 『밤의 노래』, 『終末』, 『回想의 긴 溪谷』, 『落下』, 『다리 위의 사람』,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 『太平洋에서』 등.

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인환은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에서 오든그룹 일원들의 작품과 견해를 인용, 제시하면서 자신의 시론을 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 박인환은 작품들에서도 오든, 스펀더, 루이스의 시구를 인용하기도 하였으며 제재, 형상화, 주제 등의 측면에서 그들과 유사성을 보여준다.⁶⁾ 그런데 시의 제재와 형상화 방식보다도 시의 주제의식 나아가 시론적 관점에서 볼 때 박인환과의 비교문학적 영향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오든그룹의 일원⁷⁾은 ‘오든’라고 할 수 있다.⁸⁾ 특히, 박인환의 시세계는 ‘미국여행’을 기점으로 실존적 불안의식과 폐시미즘으로 전향하는 양상을 보여준다.⁹⁾ 그런데 이 같은 그의 시적 전환은 오든의 시적 전환을 상기시킨다. 오든역시 박인환의 초기시세계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다가 ‘미국’으로 귀화하여 기독교로 전향하였다.¹⁰⁾ 그 전환점이 되는 시집

-
- 6) 오든그룹과의 영향관계를 드러내는 단적 사례를 들어보면, 박인환의 『일곱개의 層階』와 오든의 『불행한 연대』의 주요모티프, 시론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의 서두문과 C.D 루이스의 산문, 『열차』의 서두글과 스펀더의 『THE EXPRESS』의 시구 등이 있다.
- 7) 오든과 함께 ‘S. 스펀더’ 역시, 박인환의 시세계와 관련하여 유의성있는 비교문학적 대상에 속한다. 관련연구로는, 최라영, 『박인환과 S. 스펀더의 비교문학적 연구 - ‘열차’와 ‘항구’를 중심으로』(『한국시학연구』 2017), 공현진, 이경수, 『해방기 박인환 시의 모더니즘 특성 연구』(『우리문학연구』 52권, 2016) 등을 들 수 있다.
- 8) 단적으로, 박인환은 『시작』에서 김현승, 김규동, 박화목 등의 작품들에 관하여 오든, 스펀더 등의 전위시인의 사례를 들어서 통렬하게 비평하는 면모를 보여준다(박인환, 『1954년의 한국시』, 『시작』, 1954.11.20). 그리고 그는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의 결미에서 자신의 시론적 지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룹 ‘후반기’의 대부분의 멤버는 T. S. 엘리엇 이후의 제 경향과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것이 오늘의 과제가 될 것이며 나의 표제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도 엘리엇의 영향을 입은 두 사람의 현대시의 개척자 오든과 스펀더의 단편을 소개하는 데 조그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부분.
- 9) 이에 관해서는 박인환에 관한 연구사를 조명해보면 뚜렷해지는데, 그에 관한 연구는 전위적 모더니즘에 관한 것, 현실주의 및 문명비판에 관한 것, 그리고 미국 여행과 관련한 의식세계를 논한 것으로 대별되고 있다.
- 10) 오든의 후기시는 미국으로 이민하여 종교시를 창작하게 되는 시기로서 논의된

이 『불안의 연대 The Age of Anxiety』¹¹⁾이다.¹²⁾

박인환은 자신의 시론에서 오든 그룹의 시와 시론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가운데 오든의 『불안의 연대』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동시대의 문학경향을 ‘불안의 계통’으로서 지적하면서 세계대전 전후의 현대인의 ‘불안’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시의 흐름을 논의하고 있다.¹³⁾ 『불안의 연대』의 주요 모티브들, ‘죽어가는 연인,’ ‘일곱 단계,’ ‘술집에서의 회화,’ ‘신을 향한 독백’ 등은, 박인환의 작품들에서도 구체적인 제재와 주제로서 형상화되고 있다. 특히 『불안의 연대』의 주요인물인 ‘로제타’와 주요제재인 ‘일곱단계’와 ‘신’에 관한 오든의 상념들은, ‘로제타’ 및 ‘일곱단계’의 변용을 중심으로 한 박인환의 ‘신’에 관한 문제들과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 박인환은 시와 산문에서 ‘불행’과 혼용하여 ‘불안’이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면서¹⁴⁾ ‘불안의식’을 형상화하는데 그 와중에서 끊임

다. “불안의 연대”는 키에르케고르의 영향과 관련한 작품으로서 논의되며 「새해편지」, 「당분간」 등의 종교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박연성, 「오든 시에 나타난 종교 사상-후기시를 중심으로」, 범대순, 박연성, 『W. H. 오든』, 전남대출판부, 2005, 45-55쪽.

11) 이 글에서 인용되는 W.H. 오든의 원문텍스트는 *The Age of ANXIETY* (Princeton Univ, 2011)이다.

12) 오든은 1939년 1월 미국으로 건너가서 Chester Kallman과 연인이 되었으며 기독교Anglican Christianity에 귀의하였다. 그는 1942년부터 미시간 대학과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으며 “불안의 연대”는 1944년 7월, 뉴욕의 맨하탄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창작한 것이다. 즉 그가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귀화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일은 연속적인 일이며 긴밀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불안의 연대”의 작품배경역시 뉴욕 맨하탄이며 주요인물인 ‘로제타’의 거주지도 맨하탄의 아파트로서 당시 오든의 실제생활과 조응관계를 지닌다. *The Age of ANXIETY*, Introduction, xii.

13) “황폐와 광신과 절망과 불신의 현실이 가로놓인 오늘의 세계에 있어서는 『황무지』적인 것이나 『불안의 연대』나 그 사상과 의식에는 정확한 하나의 통일된 불안의 계통이 세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 부분.

14) 단적으로, 그는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에서 오든의 “*The Age of ANXIETY*”를 ‘불안의 연대’로 번역하였다. 한편, “*The Age of ANXIETY*”의 2장과 3장의 “Seven Stages”와 관련을 지닌 박인환의 「일곱개의 층계」에서는 “불행한 연대”

임없이 ‘신’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박인환은 『불안의 연대』의 네 사람의 주인공 중에서도 특히 ‘로제타’라는 여성을 중심에 두고 그녀의 사랑과 연인의 죽음을 초점화하고 있다. 이 같은 초점화방식은 그의 작품들에서 반복적으로 형상화되는 ‘신’ 혹은 ‘불행한 신’과 긴밀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박인환의 ‘불행한 신’은 오든의 ‘로제타’의 ‘신’과 대비적 특징을 보여준다. 박인환의 ‘불행한 신’은 나의 마음 속에서 늘 함께 하며 나의 불행과 불안과 함께하는 무력한 신의 형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위로와 안정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신’의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인의 ‘인간주의’와 ‘의지’에 의한 것으로 비추어진다. 이에 비해 ‘로제타’가 형상화하고 있는 ‘신’은 ‘나’와 ‘인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강력한 존재로서 구체화된다. 즉 ‘로제타’의 ‘신’은 인간들의 외부, 로제타를 비롯한 다른 인물들이 끊임없이 구했으나 찾지 못한 머나먼 ‘에덴’에 존재한다. 박인환에게 ‘불행한’과 ‘신’이 결합되어 존재하는 것은 ‘불행한 나’의 ‘신’ 즉 ‘불행한 나의 마음에 존재하는 신’이다.

박인환이 오든의 시와 견해에 영향을 입은 것은 그의 시론에서나 작품에서 볼 때 구체적인 사실들로서 드러난다. 즉 박인환은 1,2차 세계대전 전후시기에 오든을 비롯한 동시대 지식인 및 문학인의 문학적 행보와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박인환은 동시대의 ‘불안의 계보’ 하에서 오든의 시정신과 유사성을 지니면서도 그만의 차별적인 고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박인환의 시는 오든의 작품을 직접적으로 모방하거나 추수하는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리고 박인환은 전쟁기의 ‘불안’과 관련된 시론적 지향을 보여주지만 그가 영향받은 서구전위시인들과는 차별화된 깊이있는 ‘비극성’의 독자적 세계를 보여준다.

이 글은 박인환의 작품에서 『불안의 연대』의 ‘로제타’의 변용과 관련

하여 시인의 시적 지향을 조명하고 ‘일곱단계’와 관련하여 오든의 ‘신’과 대비적 관점에서 박인환의 ‘불행한 신’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로제타’의 변용과 ‘호흡이 끊긴 天使’

㉞ 전황 뉴스는 네 사람의 생각을 전쟁으로 끌고 간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네 사람은 심리적으로 접근되었다. 주장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 로제타는 자기의 아파트에 세 사람의 남자를 초청한다. 로제타와 앰블은 이미 사랑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술의 힘을 얻어 양인의 연애를 축복하며 돌아간다. ……그러나 로제타가 퀴트와 마린을 전송해 주고 방에 돌아와보니…… 애인인 앰블은 침대 위에서 차갑게 잠이 들었다.……그는 죽었다.

㉟ 신부의 베드 위에서/ 그대는 사랑을 넘고 장님이 되어 코를 끌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그대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대는 너무 겁내며 마음을 흐리었었습니까/ 내가 만족할 때까지 힘 있게 춤추었던 그대여/ 그대는 언제까지나 그와 같은 유쾌한 황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허나 그대는 훌륭합니다. 네 그러하지요?/ 아직도 왕후의 시체와도 같으시니까/ 그대가 또 다시 지배할 때까지/ 그대를 관에 눕히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들 두 사람을 위해서 잠을 이롭시다 꿈을 꿈시다/ 그대가 눈을 떠서 커피를 마실 때/ 나는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㊱ 마린은 돌아왔으며 퀴트는 술을 테이블로 가져왔다. 그리고 그는 그 술잔을 들어 로제타에게 권했다. 퀴트는 말했다./ 오너라, 페러그린 요정이며, 그대의 따스함을 보여주어요/ 찬란한 영예에 충만하여 행복 감에 젖은 어깨죽지/ 자유로운 생명이며, 감미로운 편지를 지닌/ 무선의 글귀들을 부드럽게 노래하며/ 변함없는 우주와 젊음과 돈/ 술 그리고 사랑, 그대의 양치기들을 기쁘게 하라/ 우리가 나타났다 사라짐에 의해

그들은 기쁨에 날뛰다가 거칠어진다./ 우리가 비틀거리며 가는 길/ 거기에는 새하얀 침묵/ 마주보는 벽 양쪽에는 방부제와 기구들/ 그곳을 매우는 왁자지껄한 소리들/ 그리고는 명백한 수치심. 오,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희망과 건강을 찾는 길을, 모두의 요구를 들어 주어요/ 고위 집정관들을 달래어주어요/ 우리의 훌륭한 안내인이 되어요/ 이에 로제타는 답한다.

MALIN returned and QUANT brought back drinks to the table. Then raising his glass to ROSETTA, QUANT said:/ Come, peregrine nymph, display your warm/ Euphoric flanks in their full glory/ Of liberal life; with luscious note/ Smoothly sing the softer data of an/ Unyielding universe, youth, money/ Liquor and love; delight your shepherds/ For crazed we come and coarsened we go/ Our wobbling way: there's a white silence/ Of antiseptics and instruments/ At both ends, but a babble between/ And a shame surely. O show us the route/ Into hope and health; give each the required/ Pass to appease the superior archons;/ Be our good guide./ To which ROSETTA answered:¹⁵⁾

㉔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은 주검이 아니라 葬禮式이다…// 당신과來日부터는 만나지 맙시다./ 나는 다음에 오는 時間부터는/ 人間の 家族이 아닙니다./ 왜 그러할 것인지 모르나/ 지금 처럼 幸福해서는/ 조금전 처럼 錯覺이 생겨서는/ 다음부터는 피가 마르고 눈은 감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寢台위에서/ 내가 바랄 것이란 나의 悲慘이 연속되었던/ 수 없는 陰影의 年月이/ 이 幸福의 瞬間처럼 속히 끝나줄 것입니다/ …… 雷雨속의 天使/ 그가 피를 토하며 알려주는 나의 위치는/ 曠漠한 荒地에 세워진 궁전보담도 더욱 꿈같고/ 나의 遍歷처럼 애처롭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부드러운 젖과 가슴을 내품안에 안고/ 나는 당신이 죽는 곳에서 당신의 出發이 시작된다고……/ 황홀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무지개 처럼 허공에 그려진/ 감초고가 쫓기 질었던 青春의 날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나의 품속에서 神秘와 아름다운 肉體를/ 숨김없이 보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不滅의 生命과 나의 사랑을 代置하

15) *ibid.*, PART TWO, pp.44-45, * 이 글에서 인용한 원시 번역은 모두 필자의 것.

섰습니다./ 호흡이 끊긴 不幸한 天使…… / 당신은 氷花처럼 차거우면서
도/ 아름답게 幸福의 어두움속으로 떠나셨습니다./ 孤獨과 함께 남아있
는 나와/ 희미한 感應의 시간과는 이젠 헤어집니다/ 葬送曲을 연주하는
管樂器모양/ 最終列車의 기적이 精神을 두드립니다./ 屍体인 당신과/ 별
거벗은 나와의 사실을/ 不安한 地區에 남기고/ 모든것은 물과 같이 사라
집니다./ 사랑하는 純粹한 不幸이여 悲慘이여 錯覺이여/ 결코 그대만은/
언제까지나 나와함께 있어주소, 『밤의 未埋葬』부분

㉔와 ㉕는 박인환의 시론,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에서 오든의 “불안
의 연대”를 소개하고 장시의 일부를 번역한 부분이다. 박인환은 “불안의
연대”에 등장하는 네 사람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들의 서사를 정리하였
다.¹⁶⁾ ㉔는 ‘로제타’¹⁷⁾를 서사의 중심에 두었으며 그녀의 사랑 그리고 연

16) 박인환은 인물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등장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는 꿈을 버린 선박회사의 퀀트, 캐나다 공군의 젊은 군의(軍醫) 마린,
영국 출신이며 백화점 사입계(仕入係)에 근무하고 있는 로제타, 대학 도중에서
해군장교를 지망한 호남아 앰블……”,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부분, 이에 덧붙
이자면, 퀀트Quant는 홀아비에 관심을 지닌 남성으로서 여섯 살때 그의 아버지
가 아일랜드에서 지주를 저격한 혐의로 도주하여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인물이
다. 그는 의식의 주요한 일부일 정도로 신화학Mythology에 관한 책을 많이 읽
었다. 그는 “불안의 연대”에서 노동자계층의 불행한 유년기를 드러내고 있지만
유년시절 숲속에서 친구들과 놀던 체험은 그를 포함한 네 사람이 구하는 ‘낙원’
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마린Malin은 캐나다 공군the Canadian이 되기 전
에 의무정보장교Medical Intelligence를 지낸 이력이 있는 엘리트이다. 그의 시
간, 공간 여행은 다른 인물들에 비하여 세속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체험까지 드
러낸다는 차별성이 있다. 그는 각 부에서 처음 발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가 끔
찍한 환상여행으로부터 다른 방식으로 끔찍한 현실세계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작품이 종결된다. 앰블Amble은 대학Mid-Eastern Univ 2학년 때 해군에 입대한
젊은 청년으로서 자신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공포감을 지니고 있다. 그
는 네 사람의 시,공간 여행을 통해 로제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그녀의
침대에서 갑자기 죽게 된다. 그리고 로제타에 관해서는 다음 각주의 오든의 소
개글과 이 글의 본론논의를 참고할 것.

17) ‘로제타’에 관한 오든의 소개글은 다음과 같다.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로제타는
또한 쉽게는 아니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을 무시해버렸다. 그렇다, 그녀는 돈을
꽤 벌었다 그녀는 대형 백화점의 바이어였으며 그것도 아주 유능하였다 그

인인 앰블의 죽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그가 요약한 시집의 내용은 4장 끝부분과 5장의 전반부를 초점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시집 1-6장까지의 주요내용은 인물들이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실과 환상을 오가면서 파멸되고 있는 세계의 곳곳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진다는 것이다. 인물들의 기나긴 여정에는 그들의 불행한 성장과정, 세계대전 전의 전황, 인류의 부패의 현장 등이 자동기술적인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런데 박인환은 술집에서 상이한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조우¹⁸⁾

리고 그것은 아주 큰 돈이 되었다. 그러하였던 것은 그렇게 되어본 적이 있는 여느 사람처럼 그녀 역시 가난해지는 것에 대해 예민한 공포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 미국은 삶을 영위할 돈을 벌고자 한다면 이주할 만한 지구상의 최적의 장소였다. 그러나 그곳은 그렇게 크고 텅비고 시끄럽고 엉망이었어야 했던가? 그녀는 왜 부자로 있었을 수가 없었을까? 그렇다, 그녀는 보이는 것만큼 젊지 않았음에도, 젊다고 속았던 많은 남자들 혹은 연류이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많은 남자들이 정말로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남자들은 좋아하면서도 청혼하는 부류가 아니거나 혹은 청혼은 했지만 좋아할 만한 부류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대낮의 몽상에 젖어 있다. 그녀는 점점 더- 그리고 상당히 자주- 몽상에 탐닉하였다. 그리고 영국 탐정 스토리의 모든 독자들에게 친숙한 그러한 풍경들 중의 하나를 매우 상세하게 떠올렸다. 그 장면이란 매력적인 괴짜들이 사는 사랑스럽고 순수한 시골외곽이었다. 그 괴짜들은 테니스장 혹은 온실에 끔찍한 시체가 갑자기 나타날 때에야 자신들의 독자적 수단이나 놀라움을 주는 취향을 드러내었다. 일과 법과 죄는 문학의 전용물이었다.” W. H. Auden, *The Age of ANXIETY*, Princeton Univ, 2011, pp.4-5.

- 18) 오든과 박인환의 제재, 배경상의 공통점으로는 ‘술집에서의 회화’ 혹은 ‘숙취’ 모티프를 들 수 있다. 오든은 2부 마지막 페이지에서, 유사중독상태인 ‘숙취’가 인물들의 의식, 무의식적 교감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다.

“모든 이가 알고 있듯이, 다수의 사람들이 유사중독상태에서는 그 자신들이 깨어있을 때의 상태를 훌쩍 넘어서는 능력을 드러낸다. 숫기 없던 이들이 낯선 사람들에게도 서슴없이 능숙하게 말을 건넨다. 말을 더듬던 이들이 복합적인 문장도 거침없이 술술 구사하게 된다. 운동을 못하던 이들도 역도선수나 단거리주자로 변신한다. 평범한 이들이 신화와 상징에 관한 직관적 안목을 드러낸다. 그중에서 주목받을 만한 중요한 현상은, 보통 때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자아를 향한 우리의 신뢰가 안정적이고 아주 견고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상태는 의심을 완전히 건어버리도록 하는 아주 놀랄 만한 정당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게다가 주변여건도 괜찮았다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게

와 로제타의 사랑과 애도에 관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박인환은 『불안의 연대』의 소개글에 이어 ㉔에서 ‘로제타’의 독백을 번역하였다.¹⁹⁾ 인용문 원시의 1-2행을 직역하면, “신부의 침대 위에서 눈 먼 신랑은 코를 골고 있다./ 너무 서먹하여 사랑도 못한 채”이다.²⁰⁾ 박인환은 “신부의 베드 위에서/ 그대는 사랑을 넘고 장님이 되어 코를 골고 계십니다”로 의역하였다. 이어 그는 “Too aloof to love”의

되는데 그때 그들이 공유하는 사유와 감정이란 아주 즉흥적이며 정확한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단일한 조직체처럼 기능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들은 선사시대에 찾았던 인류의 행복과 유사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것은 인간의 몸에 따라 유사하게 변화하는 상징적 풍경으로서 상상될 수 있다. 즉 주변환경이 아주 잊혀질수록 그리고 시간감각이 아주 상실될수록, 그들 네 사람은 서로에 관해 아주 섬세하게 지각하게 되며 그리고 각자의 꿈속에서도 서로 교감하는 경지에 이른다. 이 경지는, 이 같은 방식이 아니었다면, 반대로, 극도로 각성된 상태에서 서나 겨우 얻어질 수 있는 아주 드문 공동체의 상태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ibid.*, p.46.

- 19) 박인환이 역한 오든의 원시는 다음과 같다, “Blind on the bride-bed, the bridegroom snores./ Too aloof to love. Did you lose your nerve/ And cloud your conscience because I wasn’t/ Your dish really? You danced so bravely/ Till I wished I were. Will you remain/ Such a pleasant prince? Probably not./ But you’re handsome, aren’t you? even now/ A kingly corpse. I’ll coffin you up till/ You rule again. Rest for us both and/ Dream, dear one. I’ll be dressed when you wake/ To get coffee,” W. H. Auden, *ibid.*, p.98, 몇몇 번역의 오류는 있으나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 원시의 한 행 반 혹은 두 행을 넘나들며 행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역시의 행 구성은 박인환 시의 특징적 방식과 유사하다. 그는 “pleasant prince”를 “유쾌한 황제”로서 역하였는데, ‘황제’라는 말은 『무도회』, 『최후의 회화』 등에서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으로 나타난다.
- 20) 오든의 작품에는 신부와 신랑의 모티브로서 결말을 맺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오든의 “poem”(October 1929)은 신부와 유령이 된 희생자(신랑)의 형상화로써 결말을 맺고 있다(“But upon the ninth shall be/ Bride and victim to a ghost./ And in the pit of terror thrown/ Shall bear the wrath alone”). 그리고 연작시 “1929”는 호수의 지면에 누워있는 ‘신랑’의 모습이 나타나며 그 장면에서 끝을 맺고 있다. 특기할 것은 오든이 사랑의 의미를 이야기한 다음의 자리에서 ‘호수’ 속 깊이, ‘딱딱한 지면’에 (죽어있는) ‘신랑’은 ‘아름답다’는 수식어와 함께 나타난다는 점이다(“The hard bitch and the riding-master./ Stiff underground: deep in clear lake/ The lolling bridegroom, beautiful, there”).

의미도 다소 변용하였다. 즉 원시는, ‘신부의 침대 위에서 사랑도 못한 채 잠이 들었다’는 뜻에 가까우나 그의 의역은 ‘사랑을 넘고 장님이 되어 코를 골다,’ 즉 ‘사랑을 하고 코를 골며 잠들었다’는 뜻에 가깝다. 이로 해서 로제타와 앰블은 사랑을 나눈 연인의 관계 쪽으로 바뀌어진다. 변용관계는, “너무 서먹하여 사랑도 못한 채 Too aloof to love”에 이어 “Did you lose your nerve당신은 주눅이 들었었나요”가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명백해진다. 또한 박인환은 죽은 앰블을 가리키는 “dear one”을 “사랑하는 그대여”로서 역하였다. ‘dear’은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이라든가 붙일 수 있는 형용어이나 그 중에서 ‘사랑하는 그대여’를 취한 것은 둘의 관계를 ‘연인’으로 해석하는 박인환의 ‘의향’이 작용한 것이다.

앰블의 죽음을 발견한 로제타의 애도, 즉 ㉔ 이후 그녀의 독백을 보면, 앰블의 죽음을 향한 애도는 곧 사라지고, ‘바빌론의 강둑 위에서 연인과 함께하는 장면 On Babylon’s banks. You’ll build here, be/Satisfied soon, while I sit waiting,’ ‘수많은 경찰과 사람들 무리의 끔찍한 장면 Lots of police, and a little group/ In terrible trouble, don’t try to help,’ ‘림몬 신의 파티에서의 소동 장면 The rowdy cries at Rimmon’s party,’ ‘비극 시인과 함께 죽어간다고 말하는 로마황제의 모습 Caesar is sitting in solemn thought,/ Do not disturb. I’m dying tonight with/ The tragic poets-’ 등, 향락과 악덕의 역사적인 장면들이 자동기술적으로 전개된다.²¹⁾ 즉 『불안의 연대』의 중심주제, 곧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네 사람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적 부조리의 현장에서 인간들의 죄의 실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²²⁾

21) *ibid.*, pp.98-99.

22) 전체 6부로 구성된 “불안의 연대”의 1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부는 작품의 시대적 상황에 관하여 “역사적 과정이 무너지고 군대들이 편성되고 있다. 관련 논쟁들은 공허감을 안겨줄 뿐 신성하게 여길 만한 것이 없었다. 공포와 자유와 따분함이 불가피하게 뒤따를 뿐이다. 그러한 때 술집의 경기는 좋아 보인다 When the historical process breaks down and armies organize with their embossed debates the ensuing void which they can never consecrate, when

즉 오든은 세기말적 장면들 속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회의하게 되는 인물들의 여정을 주제화하고 있다. 한편 박인환은 이러한 주제보다는 ‘로제타’라는 여성의 사랑과 애도를 초점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박인환이 부각시킨 ‘로제타’와 견줄 수 있는 그의 작품으로는 ㉔의 『밤의 未埋葬』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로제타’의 상황과 유사하게,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과 그것을 애도하는 모티브와 정조를 보여준다.²³⁾ 특히, 두 작품에 나타난 여성상은 오든과 박인환 각각의 인간과 신에 관한 관점을 구체화한다. 먼저, ‘로제타’는 오든의 『불안의 연대』에 등장하는 네 사람 중에서 유일한 여성이자 인간애와 감성이 충만한 인물이다. 구체적으로, ㉔는 네 인물이 술집에서 만나고 각자의 꿈의 세계로 진입하는 장면으

necessity is associated with horror and freedom with boredom, then it looks good to the bar business”로서 시작한다. 특기할 것은, 오든은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도시인들의 평범한 삶을 설명할 때 경영주와 건물주가 그들로부터 소득을 얻는 자본주의의 기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점이다(“수많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경영주의 시장거래 손실분으로 인해 평가절하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경영주는 근심할 필요가 없었다. 그 시절에는, 그가 제공해야 하는 것들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아주 고독한 사람들과 또한 아주 실패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였다. 즉, 그가 제공하는 것들은, 어떤 것도 특별히 일어날 일이 없는 침해되지 않는 공간, 그리고 공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생리적 보조시설이었다.”). 이어 인물들은 ‘술집’에서 조우하는데, 라디오 뉴스와 기계음향은 세계대전의 파괴정황을 들려주고 있다(“자, 뉴스입니다. 한밤에 다섯 개 도시가/ 공습받았습니다. 불꽃이 치솟습니다./ 양면공격작전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추동력을 지닌 삼 차 분할공격은/ 해안 교두보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행운의 마스크 코트가/ 저격수를 구합니다. 철강공장을 파괴하려는/ 사보타주의 조짐이 있습니다./ 미치광이 나찌가 중요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 23) 박인환의 시편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관련한 죽음의식은 특징적 주제일 뿐 아니라 그의 영화평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절망 속에 혼자 남은 로베르는 마농의 시체를 생전 그가 사랑했던 오아시스까지 옮겨주려고 쳐들어 올린다./빛으로 줄은 만든 사구, 그 절정에서 시체를 끌어내리고 두 발을 잡고 거꾸로 끌고 나간다. 그 동요에 또다시 뜬 흰 눈동자의 무서움…… 피로와 환상에 기진맥진한 로베르는 하는 수 없이 시체를 버리고 쓰러지고 만다. 최후로 있는 힘을 다하여 마농을 모래 속에 묻고 이별의 입을 맞추자 뺨은 댄 채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회상의 명화선』(아리랑 1956.7).

로서(2부) ‘퀀트’가 ‘로제타’를 소개하는 부분이다. ‘로제타’는 ‘페러그린’ 혹은 ‘바다매 요정’으로 비유된다.²⁴⁾ 그 요정은 양치기를 복돋우며 무선의 편지를 나르며 행복과 건강함의 세계를 향하고 있다. ‘퀀트’는 ‘로제타’를 ‘우리의 훌륭한 안내자’로서 일컬으며 이어 ‘로제타’의 독백이 진행된다.

『불안의 연대』에서 ‘로제타’라는 여성은 ‘에덴’의 세계로 견인하는 ‘안내자’이자 인간적 감성을 지닌 존재로 부각된다. 그리고 로제타와의 육체적 사랑을 꿈꾸었던 앰블은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존재로 나타난다. 즉 오든은 로제타의 사랑을 초점에 두기보다는, 파멸되어가는 인간세계들을 확인하고 신의 에덴을 향하지만 끝내 절망하는 모습을 초점화하고 있다.²⁵⁾ 한편, ㉠에서 박인환의 화자는 “호흡이 끊긴 不幸한 天使”의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純粹한 不幸이여 悲慘이여 錯覺이여 결코 그대만은 언제까지나 나와함께 있어주소”라고 되뇌인다. 즉 ‘호흡이 끊긴’ 연인에 대해 ‘인간적 애도’를 보여주면서도 ‘불행한 천사’라는 신성한 의미를 투영한다.

즉 오든이 초점화하는 것은 인물들의 신의 세계를 향한 모색이라고 할 수 있으며 ‘로제타’와 ‘앰블’의 사랑과 ‘앰블’의 죽음은 인간계를 돌아보고 신을 추구하는 주제의식에 비해 큰 비중을 지니지는 않는다. 그런

24) ‘페러그린’은 ‘요정’과 ‘새’의 결합적 존재로서 오든의 『30년대의 신부A BRIDE IN THE 30'S』의 결미에서는 ‘신부’의 ‘비둘기’와 관련하여 ‘신이 선사하는 사랑의 언어’의 대상으로서 나타난다(“Yours is the choice, to whom the gods awarded/ The Language of learning and the language of love/ Crooked to move as a moneybug or a cancer/ Or straight as a dove”).

25) “불안의 연대”의 4장의 제목은 “The dirge” 즉 장례식의 ‘만가’로서 작품 전반의 주제를 암시한다. 이 장은 2장과 3장에서 시간상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세계의 이곳과 저곳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연옥의 풍경만을 발견하게 되는 인물들의 철저한 절망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장은 5장에서 일어날 앰블의 죽음에 관한 전조를 보여준다. 이 장의 말미는 인물들이 로제타의 아파트로 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에 거리에서 울부짖는 세탁부와 점원들, 문둥이들, 입법가들 등의 환각적 장면을 체험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데 박인환은 오든의 인물들 중에서 ‘인간애’를 충만하게 보여주는 ‘로제타’라는 여성의 인간적인 사랑과 애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박인환의 ‘로제타’의 변용과 관련하여 연인의 죽음을 주제화한 ‘호흡이 끊긴 천사’를 살펴보면 그의 시론적 지향은 좀 더 뚜렷해진다. 즉 ‘호흡이 끊긴 천사’는 시인이 지켜주어야 하는 대상이었으나 그렇지 못하고 죽어버린 여성이다. 즉 사랑하는 이를 향한 애도가 초점화되며 애도하는 이의 ‘불행한’ 마음 속에 있는 ‘호흡이 끊긴’ 사랑하는 이에게서 ‘천사’ 곧 ‘신의 세계’에 속한 형상을 발견한다.

오든의 ‘로제타’는 에덴의 세계를 모색하는 안내자이지만 박인환의 ‘호흡이 끊긴 천사’는 현실에서는 죽어버린 존재이다. ‘로제타’는 신을 부르면서도 끝내 신의 구원을 얻지 못하였으나 ‘호흡이 끊긴 천사’는 ‘에덴의 세계’에 속한 존재로서 화자를 끊임없이 인도한다. 작품 서두에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은 주검이 아니라 葬禮式이다...”에서, 박인환은 죽은 연인을 향한 인간적인 애도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며, “결코 그대만은 언제까지나 함께있어 주시오”에서 연인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한다. 즉 오든은 인간의 속성들에서 파멸적 요소를 초점화하며 그것에서 처벌하는 신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다면, 박인환은 (그것이 어떠한 죽음이라도) 여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인간적인 가치에서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香氣 짙은 젖가슴을 銃알로 구멍내고/ 暗黒의地圖 孤節된 치마 끝을/ 피와 눈물과 最後의生命을 이끌며/ 오 그대 未來의 娼婦여”, 『未來의 娼婦 - 새로운 神에게』부분).

즉 박인환의 ‘호흡이 끊긴 천사’는 사랑과 죽음과 애도와 같은 ‘인간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며 ‘인간애’ 속에서 ‘신성한’ 의미를 발견하는 ‘현세주의적 경향’을 보여준다. 이것은 인간세계의 추악한 면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처벌하는 신을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 오든의 ‘관념주의적’ 경향과 대비된다. 이런 의미에서 『불안의 연대』에서 ‘사람들 사이에 좋은 쪽으로 진전되는 감정’속에서 ‘아주 절망적으로 곤궁에 빠진 세계의 곳곳

에 평화와 용서를 기원하는 고귀한 상징'을 발견하는 다음 구절은 박인환의 인간주의적 관점에 부합된다. 즉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면서 로제타와 엠블은 서로에게 확실히 매료되고 있었다. 전쟁의 시기에는, 사람들 사이에 좋은 쪽으로 진전되는 감정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라고 해도, 과도하게 아름다운 것처럼 여겨진다. 그것은 아주 절망적으로 곤궁에 빠진 세계의 곳곳에 평화와 용서를 기원하는 고귀한 상징이다. 그래서 춤추는 사람들과 구경꾼들 모두에게, 평온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 같은 매혹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으며 실지로도 그러한 것이었다(Moving well together to the music, ROSETTA and EMBLE were becoming obviously attracted to each other. In times of war even the crudest kind of positive affection between persons seems extraordinarily beautiful, a noble symbol of the peace and forgiveness of which the whole world stands so desperately in need).”

3. ‘일곱 層階’와 ‘不幸한 神’의 의미

박인환의 시세계에서 ‘로제타’의 변용과 함께 유의성을 지닌 재제 혹은 모티브로서 ‘일곱단계’를 들 수 있다. ‘일곱단계’는 “불안의 연대”의 2장과 3장의 제목이면서 각 장의 구성원리이다. ‘일곱단계’ 역시 ‘신’과 ‘인간 세계’에 관한 두 시인의 고유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마린이 독백을 시작했다/ 저 아이를 보아라, 요람 속에서 무력하게/
의당히 잠잠하게 있는, 그러나 벌써부터/ 아이는 꿈 속에서 그날의 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아이는 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아이의 앞에는 저 너머의 죄책감으로 채워진 아득한 심연이 있
을 뿐이었다./ 무슨 일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이의 모든 반경들을 침
범하고 금지하였단 말인가, 오히려 그 금지의 명령이 아이를 유혹하도

록 하는 데도 말이다./ 아이는 두 발로 뛰는 것으로 어른들의 평가를 받는다, 그것은 인류의 구성원이 되는 방식이었다./ 아이의 가족은 해체되었으며 아이의 자유는 상실되었다./ 사랑은 법이 되었다. 지금 아이는 어른들을 바라본다./ 어른들은 아이를 의식적으로 보살폈으며/ 쟁그릴까 미소지을까, 아이의 표정을 추적하였다./ 어른들은 기침소리로 야단치면서 그것을 연민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이는 상처 난 무릎으로써 교묘하게 복수하였다./ 그리고 연약한 벌레들에게 고통과 처벌을 가하기도 하였다./ 자신이 당하는 방식을 벌레들에게 하면서 아이는 소리없이 크게 웃었던 것이다./ 그것은 아이의 애절함을 담고 있는 작은 비밀이었다./ 바로 그 순간, 아이는 공허감 속에서 발견하였다./ 그것은 패거리 내에서의 즐거움이었다./ 또한 다른 아이들과 두려워하면서 어떠한 죄를 어슬프게 공모하는 일이었다./ 아이는 무리들이 내는 경고의 메아리를 쫓아서 움직이는 눈먼 박쥐들과도 같았다./ 그것은 지그재그를 그리는 눈먼 박쥐의 기이한 춤이었던가./ 사건들과 좌절들로 적층된 아이의 감정적 형상이었던가./ 수줍음과 부끄러움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을 드러우는 한 공중곡예사에게는.

MALIN began:/ Behold the infant, helpless in cradle and/ Righteous still, yet already there is/ Dread in his dreams at the deed of which/ He knows nothing but knows he can do,/ The gulf before him with guilt beyond/ Whatever that is, Whatever why/ Forbids his bound; till that ban tempts him:/ He jumps and is judged; he joins mankind,/ The fallen families, freedom lost,/ Love become Law. Now he looks at grown-ups/ With conscious care, and calculates on/ The effect of a frown or filial smile,/ Accuses with a cough, claims pity/ With scratched knees, skillfully avenges/ Pains and punishments on puny insects,/ Grows into a grin, and gladly shares his/ Small secret with the supplicating/ Instant present. His emptiness finds/ Its joy in a gang and is joined to others/ By crimes in common. Clumsy and alarmed,/ As the blind bat obeys the warnings/ Of its own echoes, his inner life/ Is a zig-zag, a bizarre dance of/ Feelings through facts, a foiled one learning/ Shyness and shame, a shadowed flier”²⁶⁾

가만이 눈을 감고 생각하니/ 지난 하루 하루가 무서웠다/ 무엇이냐
 꺼리낌 없이 말 했고/ 아무에게도 協議해 본 일이 없던/ 不幸한 年代였
 다// 비가 줄 줄 내리는 새벽/ 바로 그때이다/ 죽어 간 青春이/ 땅 속에
 서 솟아 나오는 것이……/ 그러나 나는 뛰어 들어/ 서슴 없이 어깨를 거
 느리고/ 握手한 채 피 묻은 손목으로/ 우리는 暗澹한 일곱개의 層階를
 내려갔다// 『人間의 條件』의 앙드레·마르로우/ 『아름다운 地區』의 아
 라공/ 모두들 나와 허물 없던 友人/ 黃昏이면 疲倦한 肉體로/ 우리의 概
 념이 즐거이 이름불렸던/ <精神과 聯關의 호텔>에서/ 마르로우는 이
 빠진 情婦와/ 아라공은 절름발이 思想과/ 나는 이들을 凝視하면서……/
 이러한 바람의 낮과 愛慾의 밤이/ 回想의 寫眞처럼/ 부질하게 내 눈 앞에
 오고 간다// 또 다른 그날/ 街路樹 그늘에서 울던 아이는/ 옛날 江가에
 내가 버린 嬰兒/ 쓰러지는 建物 아래/ 슬픔에 죽어 가던 少女도/ 오늘
 幻影처럼 살았다/ 이름이 무엇인지/ 나라를 애태우는지/ 分別할 意識조
 차 내게는 없다// 시달림과 憎惡의 陸地/ 敗北의 暴風을 뚫고/ 나의 永
 遠한 作別의 노래가/ 안개 속에 울리고/ 지낸 날의 무거운 回想을 더듬
 으며/ 壁에 귀를 기대면/ 머나 먼/ 運命의 都市 한복판/ 희미한 달을 바
 라/ 울며 울며 일곱 개의 層階를 오르는/ 그 아이의 方向은/ 어테인가,
 『일곱개의 層階』

『불안의 연대』의 2장의 ‘일곱단계The Seven Stages’는 아이에서 소
 년, 청년, 장년, 노년을 단계화한 것이다.²⁷⁾ 특징적인 것은 오든의 인물
 들은 과거에서든 현재에서든, 유년기의 불행이 그들의 현재의 불행과 의
 식, 무의식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든의 ‘아이’는 주로,
 성장과정 중에 강력한 권한을 지닌 부모의 엄격한 훈육에 기인하여 공
 포와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여준다. 엄격한 처벌은 인간세계에 엄정한

26) *ibid*, PART TWO, *The Seven Ages*, pp.23-24.

27) 일곱단계에 상응하는 연령대를 암시하는 어구에 관해서, 각 단계에서 첫 번째로
 발화하는 ‘마린’과 비중이 있는 ‘로제타’에 주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단계
 는 “the infant,” 2단계는 “With shaving comes,” “In my sixteenth year,” 3단계
 는 “learning to love,” “through our naked nights,” 4단계는 “adults fear,” 5단
 계는 “Married or single,” 6단계는 “The jawing genius of a jackass age,” 7
 단계는 “His last chapter,” “The end comes” 등이다.

처벌을 내리는 ‘신의 형상’으로 종종 전이되어 나타난다(“The fallen families, freedom lost,/ Love become Law”).²⁸⁾ 박인환 역시 『일곱개의 層階』에서 세계대전과 6.25전쟁을 겪어온 시대를 ‘不幸한 年代’로 일컬으며 ‘일곱층계’를 내려가는 구도를 형상화하였다. 박인환의 ‘아이’는 청년 기인 현재로부터 과거로 거슬러가는 가운데 울고 있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의 ‘아이’는 극심한 불안과 불행에 빠져 있는 형상을 보여주는데, 이에 비하면 오든의 ‘아이’는 그다지 큰 불행에 빠져있지 않는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2장의 ‘일곱단계’ 다음의 3장의 ‘일곱단계’는, 오든의 인물들이 지상 곳곳을 탐험하는 ‘공간여행’의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2장의 일곱단계와 마찬가지로 과거와 환영을 오가는 방식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3장의 일곱단계의 각 단계 끝에는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무가 없는 분수령 a treeless watershed,” “항구rival ports,” “도시the city,” “강가의 큰 집 the big house,” “잊혀진 묘지the forgotten graveyard,” “은밀한 정원the hermetic gardens,” “숲의 가장자리the forest’s edge”이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주로, 인적이 드문 황폐한 자연풍경이 두드러지며 4단계에는 경박한 문화와 범죄에 취약한 마을풍경이, 5단계에는 악당인 늙은 학자의 집안풍경이, 모래에 묻힌 바벨탑 도시, 살인자들의 언덕, 난잡한 성행위 장면 등이, 6단계에는 죽어가는 신랑을 실은 보트를 기다리는 신부의 형상이, 7단계에는 고통스런 환청과 환각을 보게 되는 미로 같은 숲길이 이어진다.²⁹⁾

28) 유년기의 혼욕과 관련한 불행의 모티브는 오든의 작고(作故) 직전까지 형상화되고 있다(“Certain it became while we were still incomplete/ There were certain prizes for which we would never complete;/ A choice was killed by every childish illness,/ The boiling tears among the hothouse plants,/ The rigid promise fractured in the garden,/ And the long aunts”, “A BRIDE IN THE 30’S” 부분, “But to create it and to guard/ Shall be his whole reward./ He shall watch and he shall weep,/ All his father’s love deny,/ To his mother’s womb be lost,” “POEM October 1972”).

일곱단계의 여정을 거친 이후에 인물들의 의식을 요약하는 것은 그 여정을 마친 다음의 해설에서이다. 즉“심지어 그녀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그들의 공포는 견고해지고 그들의 희망은 부정되었다. 그것은, 매복해 기다리던 시간들로 인해 영속적인 근엄한 분노 속에서 시간의 도망자들이 다시 최악의 순간을 맞게 되는 것처럼, 기나긴 비행이기도 하였던 여행길의 세계들이 지금 그들 바로 앞에서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Even while she is still speaking, their fears are confirmed, their hopes denied. For the world from which their journey has been one long flight rises up before them now as if the whole time it had been hiding in ambush, only waiting for the worst moment to reappear to its fugitives in all the majesty of its perpetual fury).”³⁰⁾ 즉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일곱단계’의 여정을 통해서 궁극적 오든이 나타내는 것은 인물들의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영속적인 근엄한 분노 속’에서 ‘다시 최악의 순간을 맞게’된다는 것이다.

먼저, ‘일곱단계’의 여정을 통해 오든과 박인환이 공통적인 지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일곱단계’는 1,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체험과 관련한 당

29) 구체적으로, 3장에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소금호수와 산골짜기와 같이 주로 인적이 드문 황폐한 자연풍경이 나타난다. 4단계에서는 마을풍경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경박한 문화, 범죄에 취약한 가정, 불행과 궁핍 속의 창백한 아이들, 슬럼가와 정신병원 등으로 형상화된다. 퀴트는 ‘신의 혁명적 이미지’ 즉 서리나 홍수로서 그 사악한 세계가 결국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5단계에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근거하여 부를 축재한 노학자의 저택 즉 텅 빈 거대한 무도장, 이상한 결정이 취해지는 비밀회합의 서재, 그리고 숲속에서 호느껴우는 하녀들 등이 나타난다. 장면은, 모래 위에 문힌 바벨탑의 도시, 살인자들의 언덕, 난잡한 성행위 등으로 이어진다. 6단계는 “주체가 없이는 이곳에 출입할 수 없다(No Entrance Here Without a Subject)”고 씌인 표지를 지나며 시작하여 강가에서 죽어가는 신랑을 실은 보트를 기다리는 신부의 형상화로서 끝맺는다. 7단계에는 인물들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미로같은 숲길에서 서로의 목소리만을 들으며 걸어간다. 그들은 사자가 당나귀로 변하거나 숲속 멀리서 엄격한 아버지의 시선을 느끼거나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

30) *ibid.*, p.78.

대의 종말의식을 보여준다. 1947년에 발간된 『불안의 연대』의 창작은 1939년 세계대전 발발이후 5년여에 걸친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이루어졌다. 오든은 그러한 상황을 인류에게 내리는 ‘신의 처벌’로서 사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곱단계’는 요한계시록의 ‘일곱’의 의미와 관련된다. 즉 그것은 인간세계의 환난의 극단 혹은 신의 재림에의 희망이라는 상반되면서 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단적인 사례로, “사상자수와 악몽이 보도되고 있다Numbers and nightmares have news value”는 로제타의 말에 이어, “모든 사람들을 기소해야 할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A crime has occurred, accusing all”는 마린의 말이 이어지며, 다음에 “세상은 씻어내서 일주일의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The world needs a wash and a week’s rest”는 쿼트의 말이 이어지는 장면을 들 수 있다.³¹⁾ 특히 ‘씻어내서 일주일의 휴식’과 관련한 진술은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상징적 환난을 의미한다.³²⁾ 즉 전쟁과 폭력과 범죄로 점철된 세계가 신의 처벌을 필요로 한다는 오든의 의향을 간접적으로 전한다. 이것은 마린의 주장, “도대체 이 세상에서 신도 존재하지 않고 선도 존재하지 않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죄만이 What in his world but why he is neither/ God nor good, this guilt the insoluble”에서 고조된다.³³⁾

박인환 역시 『回想의 긴 溪谷』의 ‘죽엄의 빗탈을 지나는/ 서럽고 또한 幻影에 속은/ 어리석은 永遠한 순教者/ 우리들’에서, ‘回想의 긴 溪谷’이라는 험난한 시간적 여정을 드러내며 ‘우리들’을 종교적 신앙을 지닌 ‘순교자’로서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에서는 ‘靜寔과 硝煙의 都市 그 暗黒속’ 즉 전쟁의 포화를 입은 도시의 공간을 보

31) *ibid.*, p.15.

32) 성경에서 ‘일곱’은 특별한 양가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요한 계시록에는 ‘교회’, ‘별’, ‘봉인’, ‘천사’, ‘제양’ 등이 모두 ‘일곱’으로 나타난다. 즉 ‘일곱’은 신성하고 복된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신의 처벌과 같은 재앙의 의미를 내포한다.

33) *ibid.*, p.20.

여주고 있다. 이 작품 또한 ‘最後로 이聖者의 세계에 살아있는 것’으로서 ‘贖罪의 繪畫 속의 裸女’를 언급함으로써 전쟁기 종말의식과 기독교적 속죄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일곱단계’의 여정에서 박인환과 오든의 차이점에 주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곱단계’의 유년기 회상에서 떠오른 ‘아이’를 들 수 있다. 박인환의 ‘아이’가 겪는 ‘불행’은 ‘아르공,’ ‘마르로우,’ ‘슬픔에 죽어 가던 少女’ 등과 같이 성인기의 다양한 체험들로부터 소급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오든의 ‘아이’는 ‘엄격한 부모의 훈육’의 과거와 ‘신’의 처벌을 받는 현재를 오가며 형상화된다. 즉 박인환의 『전원』에서 그의 어머니는 자신을 훈육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연민을 갖는 대상이다. 그는 ‘지난 시인의 걸어온 길’을 회상하면서 ‘내 가슴보다도 더욱 쓰라린 늙은 농촌의 황혼’과 ‘삭풍에 쓰러지는 고목 옆에서 나를 부르는’ ‘절름발이 내 어머니’를 부른다(“절름발이 내 어머니는/ 삭풍에 쓰러진 고목 옆에서 나를/ 불렀다. 얼마 지나/ 부서진 추억을 안고/ 염소처럼 나는 울었다”). 즉 박인환의 ‘절름발이 내 어머니’는 불행한 현재의 ‘나’의 분신의 의미를 지닌다.

당대세계에 대하여, 오든은 ‘일곱단계’의 구성을 경유하여 인간세계에는 어떠한 희망도 부재하며 강력한 ‘신’의 처벌만이 있을 뿐이라는 철저한 절망을 형상화한다. 그리고 그 절망의 여정에는 유년기의 ‘엄격한 부모’의 형상이 자리잡고 있다. 박인환도 ‘일곱단계’와 같은 과거회상 속에서 유년기 자아와 현재의 자아를 오가면서 불행한 자아 혹은 불안한 자아를 드러내고는 있다. 그러나 오든의 ‘일곱단계’와 연결고리가 되는 박인환의 구절, “울며 울며 일곱 개의 層階를 오르는 그 아이의 方向은 어데인가”는 복합적 지점이 있다. 이 구절은 시의 마지막 어구로서 의문형식으로 ‘그 아이’의 ‘향방’ 혹은 ‘미래’를 열어두고 있다. 즉 ‘일곱단계’와 같은 가혹한 시련들을 형상화하면서도, 세계와 인간 그리고 시인에 대한 긍정을 전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最後로 이聖者의 세계에 살

아있는 것”에 관해 “分明코 그것은 贖罪의 繪畫 속의 裸女와/ 回想도 苦惱도 이제는 亡靈에게 賣却한 철없는 詩人……/ 나의 눈감지 못한 單純한 狀態의 屍體”(『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부분)라고 말하고 있다.

‘일곱단계’의 시공간 여행 속에서 부상되는 박인환과 오든, 각각의 ‘아이’와 ‘유년기의 부모’의 형상은, 이어지는 발화들에서 ‘신’을 향한 두 사람의 고유한 관점을 구체화한다.

날아보아라. 그것을 바라보자, 지금 우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가 상처입고 다룰 때 우리 육신은 쫓겨나게 된다/ 패총 위의 금간 항아리들처럼/ 그가 취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믿을 것이다, 그는 살해할 것이다/ 그가 지혜롭다면 그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거짓이 아닌 하나의 사실. 나는 훌쩍 날아간다, 월스트리트로/ 혹은 출판 거리로 혹은 술에 취하거나/ 음악에 열중하든지 혹은 결혼해서 잘 살든지/ 부자에게 발목이 잡혀있든지. 바로 거기에 그가 있을 것이다/ 그의 신성한 눈은 나를 향한다. 어찌 내가 멀리 숨겠는가/ 진찰실에서의 내 비밀스런 죄/ 그 앞에서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발견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은 지나쳐버려. 그는 결코 나를 놔두지 않을 것이다

Fly. let's face it, to defend us now/ When we bruised or broiled
our bodies are chucked/ Like cracked crocks onto kitchen middens/
In the time He takes. We'll trust. He'll slay/ If His Wisdom will. He
won't alter/ Nor fake one fact. Through I fly to Wall Street/ Or
Publisher's Row, or pass out, or/ Submerge in music, or marry well/
Marooned on riches, He'll be right there/ With His Eye upon me.
Should I hide away/ My secret sins in consulting rooms,/ My fears
are before Him; He'll find all/ Ignore nothing. He'll never let me ³⁴⁾

오늘 나는 모든 慾望과
事物에 作別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親한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過去는 無數한 來日에

34) *ibid.*, p.100.

잠이 들었습니다.
 不幸한 神
 어데서나 나와 함께 사는
 不幸한 神
 당신은 나와 단 둘이서
 얼굴을 비벼 대고 秘密을 터놓고
 誤解나
 人間의 體驗이나
 孤絶된 意識에
 後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시 우리는 結束되었습니다.
 皇帝의 臣下처럼 우리는 죽음을 約束합니다.
 지금 저 廣場의 電柱처럼 우리는 存在됩니다.
 설 새 없이 내 귀에 울려오는 것은
 不幸한 神 당신이 부르시는
 暴風입니다.
 그러나 虛妄한 天地사이를
 내가 있고 嚴然히 주검이 가로 놓이고
 不幸한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最後의 安定을 즐깁니다, 『不幸한 神』

“불안의 연대”에서 ‘신’과 관련한 사색과 상상은 ‘로제타’에 의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녀는 사악한 학자의 서재를 지나면서(3장의 5단계) 신에 도전한 ‘모래 속에 묻힌 바벨탑의 도시들Babel’s urbanities buried in sand’을 연상한다. 그리고 그녀는 미로의 숲길에서 고통스런 환청과 환각을 헤매는 세계에서는(7단계) 분노에 휩싸여서 ‘당신의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신’을 부르고 있다(“Dear God, regard thy child/ Repugn or pacify/ All furry forms and fangs that lurk”). 그리고 일곱단계의 세계를 지나간 다음의 인물들의 체험은 공고해진 공포their fears are confirmed’와 ‘영속적인 근엄한 분노all the majesty of its perpetual fury’로서 요약된다.

첫 번째 시에서 ‘로제타’에게 ‘신’은 ‘그’라는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즉 ‘그’에 관한 진술에서 ‘사람들’이란 ‘그의 사람들’이며 ‘그의 강력한 팔,’ ‘나를 향하는’ 그의 눈Eye,’ 그리고 ‘모든 것을 발견하는’ 존재 등이 그것이다. 한편으로, 그녀는 ‘우리,’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양한 삶의 선택들 속에서 상처입고 위협받는 형상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로제타’의 독백 속에서 ‘나’는 ‘그’를 두려워하며 ‘그’는 나의 모든 ‘죄’를 발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상황은 ‘우리,’ ‘그들’ 즉 인류 일반의 문제로 확장된다.³⁵⁾ 즉 비도덕, 살해, 전쟁 등의 상황은 ‘그’로 암시된 ‘신’이 처벌해야 할 것들이며 ‘신’은 강력하고 무자비한 형상으로 변주된다. 즉 “그는 나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He’ll never let me.” 그리고 마지막 6장은 ‘신의 세계’를 꿈꾸었던 인물들이 결국 그들이 여행한 곳들과 다를 바 없는 현실세계로 돌아오는 것으로 귀결된다.

로제타는 앰블의 죽음에 대한 애도에 곧 이어 ‘그He’라는 지칭어로서 엄격한 신의 형상에 관해 이야기한다. 특기할 것은 로제타는 ‘신’을 의미하는 ‘그’에 관한 상념으로부터 유년시절의 ‘불쌍하고 뚱뚱한 아버지My poor fat father’와 관련한 고통스런 기억의 상념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35) “우리들 육신은 맹목적이면서 아주 지겨운 것이어서 도무지 진찰할 수조차 없다./ 우리들을 흥분시키도록 하는 모든 종류들은 사라져버렸단 말인가./ 어느덧 우리들은 아이들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또한 우리들은 어떻게든 많이,/ 어떻게든 깊이 사랑할 것을 선택하고 있었다, 우리의 지성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처벌받는 우리의 무질서함에 관하여,/ 그의 물음은 우리의 예리한 감각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의 진리는 우리의 이론들을 역사적인 죄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그는 우리가 상처입은 곳을 가리키며 그리고 우리 생명체의 절규를 말해주고 있다.Though our bodies too blind or too bored to examine/ What sort excite them are slain interjecting/ Their childish Ows and, in choosing how many/ And how much they will love, our minds insist on/ Their own disorder as their own punishment,/ his Question disqualifies our quick senses,/ His Question disqualifies our quick senses,/ His Truth makes our theories historical sins./ It is where we are wounded that is when He speaks/ Our creaturely cry,” *ibid.*, pp.107-108.

다.³⁶⁾ 그리고 나서 ‘폭도는 정신이 나가고 경찰서가 불타고 공항이 감시되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불타는 장면’³⁷⁾이 이어진다. 즉 ‘로제타’는 그녀의 ‘유년시절’의 ‘아버지’와 ‘연옥의 세계’의 ‘신’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관련지어 사유한다. 이것은 도무지 찾을 길 없는 신의 온정 혹은 이상세계의 부재를 의미한다.³⁸⁾

그럼에도, 5장의 로제타의 마지막 독백은 유대어로 ‘신’을 부르며 끝맺고 있다(“듣거라, 이스라엘이여, 우리의 하느님 여호와와 오직 한 사람 여호와이시다 Shema ‘Yisra’el: ‘adonai ‘elohenu, adonai ‘echad”).³⁹⁾ ‘신’을 간절히 부르고 있음에도 로제타를 비롯한 인물들의 절박한 여행은 왜 비극적 결말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게 되었는가. 이에 관해서는 인물들의 여정의 막바지에 등장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구절 즉 3장의 6단계의 묘비명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아가 없이는 이곳에 출입할 수 없다 No Entrance Here Without a Subject”라는 구절이다. 이 부분은 오든의 인물들이 일곱단계의 기나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함께하는 자비의 신을 끝끝내 왜 발견할 수 없었는가에 관해 암시해준다.⁴⁰⁾

36) “I shan’t find shelter, I shan’t be at peace/ Till I really take your restless hands,/ My poor fat father. How appalling was.”

37) “Though mobs run amok and markets fall,/ Though lights burn late at police stations,/ Though passports expire and ports are watched,/ Though thousands tumble. Must their blue glare/ Outlast the lions? Who’ll be left to see it/ Disconcerted? I’ll be dumb before/The barracks burn-.”

38) 이것은 6장의 에필로그에서 John Milton의 “실락원paradise lost”의 구절 즉 “Some natural tears they drop’d, but wip’d them soon; The world was all before them, where to choose…”를 통해서도 구체화된다.

39) 또한 5장의 서두인용에서 Ronald Firbank의 “Oh, Heaven help me,” she prayed, to be decorative and to do right”을 주목할 수 있다.

40) 송인갑은 『불안의 연대』의 인물들이 “어떠한 심리적 치유” 혹은 “종교적 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인물들이 불행과 절망에 시달리면서도 “불행과 절망과 공포의 실체에 직면”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송인갑, 『오든의 『불안의 연대』에 나타난 불안의 개념』, 『인문연구』 31집, 인하대학 인문과학연구소, 2000, 104쪽.

구체적으로, “자아가 없이는 이곳에 출입할 수 없다”가 씌인 나무표지판을 지나가면서 인물들의 6단계 여정이 시작된다. 그들은 이 표지판 아래에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씌인 글씨들을 읽어나간다. 그것은 나무표지판의 ‘이곳here’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이곳은 성스러운 장소이다/ 드디어 이곳에/ 침묵의 대리석에/ 지배자는 봉인하였다/ 화려했던 그의 시대를/ 염소얼굴을 한 베짖이들과/ 키가 크고 여윈 조롱당한 소년들이/ 출몰하곤 하는 곳/ 이곳은 그들의 육체가 느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말해준다/ 이곳에서 충동은 그 추동력을 상실한다, 그리하여/ 소년들의 다리, 결단력, 그리고 갈망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그것들이 가져오는/ 큰 야심, 아름다움, 그 모든 것들이/ 걸어가는 도중에 멈추는 것이다/ 제멋대로 된 경계선으로 인하여/ 거기서 야생화는 피어나며 풍요로움은 끝이 난다.”⁴¹⁾

여기서 ‘성스러운 장소Here it is holy’는 ‘신의 온정’으로 이루어진 낙원을 뜻한다.⁴²⁾ 그런데 그 세계는 오래되고 황폐한 묘지가 되어 봉인되

41) “Here it is holy,/ Here at last/ In mute marble/ The Master closed/ His splendid period;/ A spot haunted/ By goat-faced grasshoppers/ And gangling boys/ Taunted by talents/ Which tell them more/ Than their flesh can feel./ Here impulse loses/ Its impetus: thus/ Far and no farther/ Their legs, resolutions/ And longings carried/ The big, the ambitious/ The beautiful; all/ Stopped in mid-stride/ At this straggling border/ Where wildflowers begin/ And wealth ends.”

42) “불안의 연대”와 유사한 구도와 주제를 담은 오든의 장시로 ‘중일전쟁’ 체험을 담은 “전시에In Time of War”가 있다. 전 27편의 이 작품은 낙원에 살던 인간이 선악과로 인해 쫓겨나는 장면으로부터 신의 말씀을 전하는 시인이 세속적 삶 속에서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 그리고 자유를 누리지만 과거의 낙원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불안의 연대”에서 봉쇄된 혼적으로만 존재하는 신의 낙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즉 “그리하여 그러한 시절로부터 소낙비처럼 재능이 부여되었다,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곧장 달아나서는 제각각의 삶을 살았다/ 별은 별집을 만드는 지혜를 취하였다/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헤엄치게 되었으며, 복숭아는 복숭아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그들의 최초의 노력들은 성공적이었다/ 그들의 탄생의 시간은 그들의 유일한 대학시절이었다/ 그들은 조숙한 지식에 만족하였다/ 그리고 그들

어 있다 In mute marble The Master closed. 그런데 ‘성스러운 장소’는 인물들이 유년시절에 즐겁게 놀았던 곳이자 ‘추동력’과 ‘큰 야심과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던 추억의 장소로 형상화된다. 표지판의 작은 글씨들은, ‘야심과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소년들의 절망’이 그들의 유년기의 ‘엄격한 훈육’과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즉 ‘그 모든 것들이 도중에 멈추는’ 것은 ‘제멋대로인 경계선’ 때문인 것이다(“The big, the ambitious, / The beautiful; all / Stopped in mid-stride / At this straggling border / Where wildflowers begin / And wealth ends”). 이것은 ‘신의 온정’의 세계를 향하는 길이 결핍 혹은 상처를 입은 인물들의 유년기 자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이 비유는 ‘일곱단계’의 의식, 무의식의 여정 속에서 ‘(부모에 의해) 모든 반경을 침범하고 금지당하는 Whatever that is, Whatever why / Forbids his bound’ ‘마린’의 ‘아이’를 상기하도록 한다.

봉인된 낙원의 표지판의 “자아가 없이는 이곳에 출입할 수 없다”는, 인물들의 ‘결핍’의 근원적 지점이 ‘이곳’에 출입할 수 있는 열쇠와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유사한 주제가 “불안의 연대” 시작부의 마린의 첫 발화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자신들의 시간여행의 의미를 ‘자아의 탐색’과 관련지어, “시간을 통과하는 여행자의 영속적 현재”가 ‘종적을 감춘

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있었으며 영원히 훌륭하였다 So from the years the gift were showered; each / Ran off with his at once into his life; / Bee took the politics that make a hive; / Fish swam as fish, peach settled into peach. // And were successful at the first endeavour; / The hour of birth their only time at college; / They were content with their precocious knowledge; / And knew their station and were good for ever”(“In Time of War”, 1연 첫부분), “그들은 떠났으며 곧장 기억은 희미해졌다 / 그들이 배웠던 모든 것들을, 그들은 항상 도움을 주었던 개들의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 그들과 늘 계획을 함께 짰던 강물은 병어리가 되어버렸다 They left: immediately the memory faded / Of all they’d learnt; they could not understand / The dogs now who, before, had always aided; / The stream was dumb with whom they’d always planned”(“In Time of War” 2연 부분).

고유한 그의 자아를 탐색하여 얻어내려는 희망을 지니고서, 그의 육체가 존재한다고 과장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갈팡질팡하게 된다”⁴³⁾고 말한다.

그러나 마린은 뒤이어 그들의 시공간적 여행의 결말에 관해서 ‘추락한 영혼’과 ‘죄의식’과 ‘두려움’으로 귀결된다고 말하고 있다(“그것은 추락한 영혼/ 공간을 장악하고서, 자신의 세계 속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하지만 자신이 신도 아니며 결코 선도 아닌 까닭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죄의식은 해결할 수 없는/ 궁극의 사실이다. 이것은 그가 사적으로 결합한 요구들, 혹은 주시한 그의 목표들에, 이해할 수 없기도 하고 이해할 수 있기도 한 포괄적 두려움을 주입하고 있다./ 그 두려움은, 그가 알고 있는 무엇 혹은 이 세계 앞에서 자신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⁴⁴⁾). 즉 인물들은 시공간적 여행에 의해 과거의 기억속에 매몰된 채 미성숙한 자아의 상처를 반복적으로 상기해내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부모의 형상’이 ‘아이’의 관점에 한정되어 엄격하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포함한 인간들의 결점과 죄, 폭력과 전쟁의 사태를 일일이 들추어내는 여정을 취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그들은 다만 두려움 속에 허우적거리며 인류를 처벌하는 신의 흔적만을 발견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과 동떨어진 세계의 ‘신’이 자아의 고통을 비약적으로 구원해 주기를 소망한다.⁴⁵⁾ 그들의 긴 여정에 관해, 이 작품의 마지막 문장에서 ‘자아를

43) “The traveler through time, his tired mind/ Biased towards bigness since his body must/ Exaggerate to exist, possessed by hope/ Acquisive, in quest of his own/ Absconded self yet scared to find it/ As he bumbles by from birth to death.”

44) “--a fallen soul/ With power to place, to explain every/ What in his world but why he is neither/ God nor good, this guilt the insoluble/ Final fact, infusing his private/ Nexus of needs, his noted aims with/ Incomprehensible comprehensible dread/ At not being what he knows that before/ This world was he was willed to become”.

해체하는 일self-destruction, its adoption'로서 표현한 것은 적합한 표현이다.⁴⁶⁾

이런 의미에서, 박인환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함께한다고 의식하는 신의 형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그는 고통스런 현실에 처한 자아의 내면 속에서 '인간적인 가치들'을 읽어내며 그것들에 내재된 '신적인 것'을 발견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위 작품에서 자아의 내부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고통'과 '불안'과 '절망'을 함께하는 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잠 못 이루는 밤』이나 『새벽 한 시의 시』등에서 보듯이, 자기자신에 대한 철저한 응시를 경유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박인환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작품들에서 '신' 혹은 그와 관련된 자연물을 환기하거나 '신의 시선'을 의식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오든의 인물들의 '신'이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형상이라면, 박인환의 '신'은 그 자신과 '불안'을 함께 하며 안정감을 주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연유로 박인환의 '신'은 (자아의 불행을 함께하는) '불행한 신'이 된다. 즉 "나와 단 둘이서 얼굴을 비벼 대고 비밀을 터놓"는 존재이다. 박인환

45) "In Time of War" 연작시는, "불안의 연대"에서 낙원을 향한 시공간의 탐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낙원으로부터의 추방과 타락한 인간의 현실세계 그리고 낙원에의 향수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의 마지막 27연에서 오든은 신의 낙원에의 향수를 나타내지만 '자유'를 지닌 인간의 삶을 선택하는 듯이 보인다. 유의할 것은 오든의 이 작품역시 "불안의 연대"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이 '커다란 문' 안의 세계 곧 신의 세계와는 단절되어 있을 뿐임을 확인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변함없는 냇물과 견고한 집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투성이의 견습공과 같다, 우리는/ 커다란 문처럼 결코, 알몸으로 있을 수도 침착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분수처럼 완벽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유 속에서 살고 있다./ 산더미처럼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We envy streams and houses that are sure:/ But we are articted to error; we/ Were never nude and calm like a great door,// And never will be perfect like the fountains;/ We live in freedom by necessity,/ A mountain people dwelling among mountains." "In Time of War" 27연 끝부분).

46) *ibid.*, p.108.

은 자신의 ‘불안’ 혹은 ‘불행’을 토로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과 함께 하는 초월성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다. 즉 그는 “不幸한 당신이 있으므로 / 나는 最後의 安定을 즐기”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일곱층계’의 회상 속에서 그의 유년기 자아와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절름발이 내 어머니’와 관련을 지닌다. 유년기의 불행이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박인환과 오든은 유사성을 지니지만, ‘유년기 관점’에서 고정화된 오든의 ‘엄격한 부모의 상’과 대비적으로, 박인환은 ‘연민을 자아내며’ ‘내(나의)’라는 수식어가 붙는 ‘연민의 대상이자 분신으로서의 부모의 상’을 보여준다. 물론, 당대 자신들이 속한 세계를 전운이 감도는 ‘불안의 연대’로서 인식하는 것에서 두 사람은 공통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오든은 (적어도 “불안의 연대”에서는) 인간세계의 추악한 면모를 확인하고 그것을 인간세계와 떨어져버린 ‘강력한 신’의 처벌로서 인식한다. 그리고 박인환역시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달’로 표상된 자연물을 통해 현 세계와 무관한 듯한 ‘신의 형상’을 발견한다(“神이란 이름으로서/ 우리는 저 달 속에/ 暗澹한 검은 江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검은江』부분). 그러나 박인환은 ‘친우’와 ‘가족’을 염려하는 자리에서 자아의 내면을 철저히 응시하고 ‘신’을 부르며 안정감을 찾고 있다. 그때 그의 ‘신’은 ‘불행한 신’이지만 ‘절름발이 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면에 자리잡은 신성한 분신이 된다.

특기할 것은, 박인환역시, 자신의 바깥 혹은 타인들과의 소통 속에서 신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영원한 일요일』은 ‘일요일’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예절처럼 떠나버리는 태양’ 아래서 ‘복음도 축수도 없이 떠나가는’ 장면을 형상화한다. 박인환은 교회 사람들의 회합에서 ‘영원한 일요일’의 ‘傷風된 사람들’ 즉 다만 영원히 멀리 동떨어져 있는 신을 절감할 뿐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囚人이여/ 지금은 희미한 凸形의 시간/ 오늘은 일요일/ 너희들은 다행하게도 / 다음날에의/ 비밀을 갖지 못했다./ 절름거리며 교회에 모인 사람과/ 수

죽이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복음도 축수도 없이/ 떠나가는 사람과// 傷
風된 사람들이여/ 영원한 일요일이여). 즉 그가 『불안의 연대』의 주제
에 관해, ‘현대인들이 소통을 시도하지만 각자가 떠안은 ‘불안’으로 인해
‘허무함’으로 귀결되어버린다’⁴⁷⁾고 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처한 이 같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든이 절대적인 신과 유한한 인간을 구별짓고서 인간세계와는 동
떨어진 신을 찾고 있다면, 박인환은 인간들의 세계 속에서 신을 찾으며
현재의 ‘불행’과 ‘불안’ 속에서 ‘불행한 신’이 선사하는 역설적 안식처를
체험한다. 즉 박인환의 ‘신’은 ‘나’의 마음 속에서 늘 함께 하며 ‘나’의 ‘불
행’과 ‘불안’과도 함께하는 무력하지만 인간적인 존재이다. 그는 그러한
‘신’을 내면에 품고 있는 그 자체로 위로와 안정을 되찾는다. 그러한 장
면은 ‘신’을 향한 그의 믿음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신성’ 혹은
‘인간성’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오든의 ‘로제타’의 ‘신’은 ‘나’와 ‘인간들’의 마음 속에 있다기보다는, 인
간들 세계의 외부에 있는 ‘강력한’ 존재로서 구체화된다. 그는 전쟁과 같
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인간들을 처벌하는 신의 흔적들을 발견하며
낙원으로부터 쫓겨나 막막한 인류의 상황을 확인한다. 한편, 박인환은
사랑과 애도와 같은 ‘인간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에서 ‘신성한’
의미를 찾는 ‘현세주의적 경향’을 보여준다. 이것은 인간세계의 추악한
면과 신의 처벌상을 확인하고서 자신들을 구제할 신을 부르는 오든의
‘관념주의적 경향’과 대비된다. 박인환에게 ‘불행한’과 ‘신’이 결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행한 나’의 ‘신’ 즉 ‘불행한 인간들의 마음에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그의 ‘불행한 신’은 ‘1950년대 사절단’으로서 전쟁현실
을 보고하고 친구들의 비참한 주검들을 목도하면서 불렀던 절박한 토로

47) “시인은 불안의 연대의 주제에 관해서 현대인들이 소통을 시도하지만 각자의
불안으로 인해 그것은 허무함으로 귀결되어버린다,”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
부분

쳐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현대시의 의의’를 “전후적인 황무지 현상과 광신”에서 “더욱 인간의 영속적 가치를 발견하는”⁴⁸⁾ 것 즉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그의 신념과 관련된다.

4. 결론

이 글은 『불안의 연대』의 ‘로제타’의 발화와 관련하여 박인환의 시에서 초점화되는 ‘인간적 가치’를 조명하고 ‘일곱단계’의 의미와 관련하여 오든이 형상화한 ‘신’과 대비하여 박인환의 ‘불행한 신’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오든은 ‘로제타’의 사랑을 초점에 두기보다는, 파멸되어가는 인간 세계들을 확인하고 신의 에덴을 향하지만 끝내 절망하는 모습을 초점화하고 있다. 그런데 박인환은 오든의 인물들 중에서 ‘인간애’를 충만하게 보여주는 ‘로제타’라는 여성의 인간적인 사랑과 애도를 부각시켰다. ‘로제타’의 변용과 대비되는 박인환의 ‘호흡이 끊긴 천사’는 시인이 지켜주어야 하는 대상이었으나 그렇지 못하고 죽어버린 여성이다. 그는 사랑하는 이를 향한 애도를 초점화되며 애도하는 이의 ‘불행한’마음 속에 있는 ‘호흡이 끊긴’ 사랑하는 이에게서 ‘천사’ 곧 ‘신의 속성’을 발견한다. 즉 그는 여인과의 사랑과 애도와 같은 ‘인간적인 가치들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들 속에서 ‘신적인 것’을 찾고 있다.

‘로제타’의 변용과 함께 유의성을 지닌 재제는 ‘일곱단계’를 들 수 있다. ‘일곱단계’는 “불안의 연대”의 2장과 3장의 제목이자 각 장의 구성원리이다. ‘일곱 단계’의 의미는 1,2차 세계대전 및 6.25전쟁이라는 역사의 비극적 단계를 나타내면서 성경에서의 ‘일곱’, 즉 인간세계의 환난의 극단 혹은 신의 재림에의 희망이라는 상반되면서 양립적인 뜻을 나타낸다. 오든은 ‘일곱단계’의 구성을 경유하여 인간세계에는 어떠한 희망도 부재

48)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 부분

하며 강력한 ‘신’의 처벌만이 있을 뿐이라는 철저한 절망을 형상화한다. 그 절망의 여정에는 유년기의 ‘엄격한 부모’의 형상이 자리잡고 있다. 유년기의 불행이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오든과 박인환은 유사성을 지니지만, 오든의 ‘엄격한 부모의 상’과 대비적으로 박인환은 ‘연민의 대상이자 분신으로서의 부모의 상’을 보여준다.

두 시인에게서 ‘신의 온정’의 세계를 향하는 길은 곁핍 혹은 상처를 입은 인물들의 유년기 자아의 문제 즉 ‘일곱단계’의 여정 속에서 의식, 무의식적으로 떠올랐던 ‘부모의 형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즉 오든의 인물들은 시공간적 여행 속에서 심층적 이해가 곁핍된 유년기 자아의 관점에서 과거의 상처만을 기억해내는 일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들의 곁핍과 죄, 폭력과 전쟁의 사태를 일일이 들추어내면서 ‘엄격한 훈육’과 환치되는 인류를 처벌하는 신의 자취들을 발견하면서 다만 두려움 속에 허우적거리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박인환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함께한다고 의식하는 신의 형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친우’와 ‘가족’을 염려하는 자리에서 자아의 내면을 응시하고 ‘신’을 부르며 ‘불안’으로부터 안정감을 찾는다. 즉 그의 ‘신’은 ‘불안한 신’이자 ‘불행한 신’이다(그의 작품들에서 ‘불안’과 ‘불행’이라는 말은 혼용되며 그 둘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것은 ‘절름발이 내 어머니’와 유사하게 그 자신의 내면에 자리잡은 분신으로서 나타난다. 그의 ‘신’은 고통스런 현실에 처함에도 자아에 내재된 ‘인간적인 가치들’을 인식하고자 하는 절박함 속에서 부상한다.

오든의 ‘로제타’의 ‘신’은 ‘나’와 ‘인간들’의 마음 속에 있다기보다는, 인간들 세계의 외부에 있는 ‘강력한’ 존재로서 구체화된다. 그는 전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인간들을 처벌하는 신의 흔적들을 발견하며 낙원으로부터 쫓겨나 막막한 인류의 상황을 확인한다. 한편, 박인환은 사랑과 애도와 같은 ‘인간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에서 ‘신성한’ 의미를 찾는 ‘현세주의적 경향’을 보여준다. 이것은 인간세계의 추악한 면과

신의 처벌상을 확인하고자 자신들을 구제할 신을 부르는 오든의 ‘관념주의적 경향’과 대비된다. 박인환에게 ‘불행한’(혹은 ‘불안한’)과 ‘신’이 결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행한 나’의 ‘신’ 즉 ‘불행한 인간들의 마음에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그의 ‘불행한 신’은 ‘1950년대 사절단’으로서 전쟁현실을 보고하고 친우들의 비참한 주검들을 목도하면서 불렀던 절박한 토로처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현대시의 의의’를 “전후적인 황무지 현상과 광신”에서 “더욱 인간의 영속적 가치를 발견하는”것 즉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그의 신념과 관련된다.

참고문헌

- 문승묵 편, 『박인환 전집』, 예옥, 2006.
- 맹문재 편, 『박인환 전집』, 실천문학, 2008.
- 엄동섭, 염철 편, 『박인환 문학전집』, 소명출판, 2015.
- 강계숙, 「‘불안’의 정동, 진리, 시대성: 박인환 시의 새로운 이해」, 『현대문학의 연구』 51, 현대문학연구학회, 2013, 431-469쪽.
- 강웅섭, 「9장. 세미나 10 읽기」, 『자크 라캉의 『세미나』 읽기』, 세창미디어, 2015.
- 공형진·이경수, 「해방기 박인환 시의 모더니즘 특성 연구」, 『우리문학연구』 52권, 우리말학회, 2016, 307-343쪽.
- 곽명숙, 「1950년대 모더니즘의 목시록적 우울-박인환의 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59-79쪽. .
- 김승희, 「전후 시의 연술 특성: 애도의 언어와 우울증의 언어-박인환·고은의 초기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23, 한국시학회, 2012, 123-152쪽.
- 김용희, 「전후 센티멘털리즘의 전위와 미적 모더니티 -박인환의 경우」, 『우리어문연구』 35, 우리어문학회, 2009, 301-329쪽.
- 김유중, 『한국 모더니즘 문학과 그 주변』, 푸른사상, 2006.
- 김은영, 『1950년대 모더니즘 시 연구』, 창원대 박사논문, 2000.
- 김혜영, 「환상 극장에 출현하는 분열된 주체들 -김민정의 시를 중심으로」, 『비평과 이론』 21권 3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6, 151-174쪽.
- 김승윤, 「오든의 지적 세련 해체하기」, 『강남대학교 논문집』 35, 강남대학교, 2000, 1-17쪽.
- _____, 『오든 시의 이해』, 브레인하우스, 2000.
- _____, 『포스트모던 오든』, 브레인하우스, 2002.

- 김중윤, 「전쟁체험과 실존적 불안의식-박인환론」, 『현대문학의 연구』 7, 한국문학연구학회, 1996, 125-165쪽.
- 김주성, 「오든 초기시의 인간중심적 고찰」, 『영미문화』 6권 1호, 한국영미문화학회, 2006, 29-43쪽.
- 김준환, 「김기림은 스티븐 스펜더의 시를 어떻게 읽었는가?」, 『비평과 이론』 12, 한국비평이론학회, 2007, 81-127쪽.
- 김재홍, 「모더니즘의 공과」, 이동하 편, 『한국현대시인연구12』, 문학세계사, 1993.
- 대니 노부스 편, 문심정연 역, 『라캉 정신분석의 핵심개념들』, 문학과지성사, 2013.
- 라기주, 「박인환 시에 나타난 불안의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81-110쪽.
-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까치, 1998.
- 맹문재, 「박인환의 전기 시작품에 나타난 동아시아 인식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8, 243-267쪽.
- 문혜원, 「전후 모더니즘 문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1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83-98쪽.
- 박몽구, 「박인환의 도시시와 1950년대 모더니즘」, 『한중인문학연구』 22, 한중인문학연구, 2007, 131-159쪽.
- 박연희, 「박인환의 미국 서부 기행과 아메리카니즘」, 『한국어문학연구』 59,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2, 137-182쪽.
- 박현수, 「전후 비극적 전망의 시적 성취-박인환론」, 『국제어문』 37, 국제어문학회, 2006, 127-161쪽.
- , 「김수영 시론에 있어서 전위성의 성격과 기원」, 『어문논총』 60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 281-306쪽..
- 방민호, 「박인환 산문에 나타난 미국」, 『한국현대문학연구』 19, 한국현대문학회, 2006, 413-448쪽.

- 범대순, 박연성, 『W. H. 오든』, 전남대출판부, 2005.
- 변광배, 『장폴 사르트르 시선과 타자』, 살림, 2004.
- 사르트르, 『존재와 무』 정소성 역, 동서문화사, 2009.
- 샤를 르 블랑, 이창실 역, 『키에르케고르』, 동문선, 2004.
- 송인갑, 「오든의 『불안의 연대』에 나타난 불안의 개념」, 『인문연구』 31집,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83-113쪽.
- 범대순, 『W. H. 오든』, 전남대출판부, 2005.
- 쇠렌 키르케고르, 임규정 역, 『불안의 개념』, 한길사, 1999.
- _____, 임규정 역, 『죽음에 이르는 병』, 한길사, 2007.
- 안영수, 「1930년대 영국 문인들의 이념적 갈등」, 『경희대 논문집-인문사회과학 편』 19, 경희대학교, 1990, 15-37쪽.
- 알랭 드 보통, 『불안』, 은행나무, 2012.
- 엄동섭, 「해방기 박인환의 문학적 변모 양상」, 『어문논집』 36, 중앙어문학회, 2007, 217-245쪽.
- 오세영, 「후반기 동인의 시사적 위치」, 『박인환』, 이동하 편, 『한국현대시인연구』 12, 문학세계사, 1993.
- 오문석, 「박인환의 시정신과 산문정신」, 『문학사상』 35.3, 문학사상사, 2006.
- 이기성, 「제국의 시선을 횡단하는 시 쓰기: 박인환 시의 탈식민주의」, 『현대문학의 연구』 34,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7-45쪽.
- 이승훈,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의 전개」, 『한국모더니즘 시사』, 문예출판, 2000.
- 이은주, 「1950년대 문학비평의 세계주의와 미국적 가치지향의 상관성」, 『상허학보』 18, 상허학회, 2006, 9-31쪽.
- 장석원, 「아메리카 여행 후의 회념」, 『박인환 깊이 읽기』, 서정시학, 2006.
- 조영복, 「근대문학의 ‘도서관 환상’과 ‘책’의 숭배 -박인환의 『서적과 풍

- 경』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23, 한국시학회, 2008, 345-375쪽.
- 정영진, 「박인환 시의 탈식민주의 연구」,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387-417쪽.
- 최라영, 「박인환 시에 나타난 ‘청각적 이미지’ 연구-‘소리풍경soundscape’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64, 한국비교문학회, 2014, 243-279쪽.
- _____, 「박인환 시에서 ‘십자로의 거울’과 ‘새로운 불안’의 관련성 연구 - 라캉의 ‘정동’이론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연구』51, 한국현대문학회, 2017, 451-483.
- _____, 「박인환과 S. 스펜더의 비교문학적 연구 - ‘열차’와 ‘항구’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51호, 한국시학회, 2017, 313-341쪽.
- 프로이트, 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4.
- _____, 『정신병리학의 문제들』, 열린책들, 2010.
- _____,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7.
- _____,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 _____, 이상률 역, 「XI 자아 속의 한 단계」,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 이책.
- 한명희, 「박인환 시 『아메리카 시초』에 대하여」, 『어문학』 85, 한국어문학회, 2004, 469-493쪽.
- 허현숙, 『오든』, 건국대출판부, 1995.
- 홍성식, 「한국 모더니즘 시의 스티븐 스펜더 수용」, 『동서비교문학저널』 13호, 동서비교문학학회, 2005, 265-287쪽.
- 황준호, 「W. H 오든의 시학과 정치성」, 『영어영문학』 55권 2호, 한국영어영문학회, 2009, 315-335쪽.
- C.D 루이스, 조병화 역, 『현대시론』, 정음사, 1956.
- Jacques Lacan, Edited by Jacques-Alain Miller, *Anxiety :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 Book X*.

W. H. Auden, *The Age of ANXIETY*, Princeton Univ, 2011.

_____, 범대순 역, 『사랑과 고뇌의 노래』, 혜원세계시인선 29, 1991.

_____, 김기태 역, 『바다의 경치』, 태학당, 1994.

_____, 봉준수 편역, 『아킬레스의 방패』, 나남,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Park In-hwan's poetry and 『The Age of Anxiety』 of W. H. Oden*

- focused on the imagery of the 'Rosetta' and the meaning of the 'wretched God' -

Choi, Ra-Young**

Park In-hwan gives much value to 『the Age of Anxiety』 of Oden by introducing Oden group's poetry and poetics in his poetics. He argues the stream of modern poetry focused on the 'anxiety' and 'agony' of modern people who lives before and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rough indicating that the contemporary literature has tendency of the 'system of anxiety'. There are many motives of 『the Age of Anxiety』 such as 'dying women', 'seven ages as a meaning of time and space', 'dialogue in the pub', and 'monologue to the God' in his poetry. Especially, conceptions related with 'the seven ages', and 'the God', main motives of 『the Age of Anxiety』, are important to examine his imagery of 'consciousness of anxiety' and 'the God'. He uses frequently 'anxiety' and 'unhappiness' in his verse and prose, and makes imagery of 'consciousness of anxiety'. he shows his constant aims to the 'wretched God' in those works. Especially, he deals with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7S1A5B5A07060924).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osetta’ who is one of the four main characters of 『the Age of Anxiety』 and focuses on the love of her and her lover’s death. The feature of dealing with ‘Rosetta’ shows that it has connection with his ‘wretched God’. In addition, it can be contrasted with the imagery of Oden’s ‘Rosetta’ and ‘the God’.

This essay examines ‘humanism’ of Park In-hwan’s poetry by viewing ‘Rosetta’ of 『the Age of Anxiety』 and the meaning of his ‘wretched God’ by comparing it with ‘the God’ of Oden. Oden describes ‘Rosetta’ as a guide to the Garden of Eden and a humane woman. Meanwhile, Park In-hwan describes ‘Rosetta’, ‘an angel who stop breathing’, as a dead object failed to be protected. ‘Rosetta’ of Oden is a guide to Eden but ‘Rosetta’ of Park In-hwan is a guide of a poet by giving his condolences. In other word, he pursues ‘the God’ by giving value to love, death, and condolences which are humanistic. Park In-hwan can be called as a realist, but Oden can be called as an idealist. Park In-hwan’s imagery is contrasted with that of Oden who pursues ceaselessly paradise made by God after assuring the ugliness of human and this world.

The imagery of ‘Rosetta’s ‘God’ is not in the mind of ‘me’ and ‘people’, but in the outer world of people as a ‘powerful’ existence. This is related with the figure of God that punishes human who brought about the worst situation such as war. The ‘God’s world’ of ‘Rosetta’ is an Eden located far away and cannot be reached at in spite of constant hunting by characters including ‘Rosetta’. Consequently, characters of Oden seek only outer world where their soul can avoid agony or seek God’s world where they can be rescued. Meanwhile, it is not outer world but his inner world where is painful

real self that Park In-hwan seek 'humanism' and 'sanctity'. The 'God', to him, is an existence who exists in the poor. His 'unhappy God' is an existence who listens to his scream and gives condolences in the circumstance of his reporting horrors of the Korean war and witnessing the death of friends.

Key Words: Park In-hwan, W. H. Oden, The Age of Anxiety, Rosetta, the seven ages, anxiety, 'powerful' existence, unhappy God, his inner world, humanism.

■ 논문접수 : 2018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8년 4월 9일

■ 게재확정 : 2018년 4월 16일

